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II) — 기본욕구를 중심으로 —

강 경 자

경상대학교 자연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Effect of Basic Need Variables on the Modesty and Aesthetics in the Selection of Clothing

Kyung Ja K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93. 9. 2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basic needs and demographic variables of adult woman on the modesty and aesthetics in the selection of cloth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are factors which have effect on variables of need. School careers have effect on physical need. Age, marriage status and household type have effect on safty need. Native community and household type have effect on self-esteem. School career, native community, household type and frequency of contact with mass media have effects on need of self-actualizing and native community has effect on the aesthetic need.

2. Physical need, self-esteem, self-actualization, safety need, frequency of contact with mass media, age, native community and income have direct effect on the modesty of clothing.

3. Aethetic and self-actualization need, frequency of contact with mass media and income have direct effect on the aethetics of clothing.

I. 서 론

인간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의복을 착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다양한 동기는 주로 정숙성, 장식성, 보호성의 측면에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특정 측면만을 강조할 수는 없으며 여러 변인들이 밀접하게 상호관련되어 있다.

Flügel^[1]이 언급하였듯이 의복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미와 정숙함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서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특정측면의 행동을 강조하게

된다. 이들 두 행동은 상이한 행동이다. 이와같이 상이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1보^[2]에서 의복을 통해 정숙성이나 심미성을 강조하는 것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표현수단이 되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정숙성은 심미성과는 달리 의복을 통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숙한 측면을 강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의복선택에서 이러한 상이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다른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왜 특정의복을 착용하는지 알려면 먼저 그

동기가 규명되어야 하지만 그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 Kaiser³⁾는 그 증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의복을 착용하는 개인의 동기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으로 보고 의복착용동기에 관한 다차원적인 접근방식이 개인의 의복행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Horn⁴⁾은 의복은 복합적인 동기들의 산물이며 이 동기들은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문화적 상태로부터 발생한다고 하였다. Mills⁵⁾도 동기가 특별한 사회적환경에 의하여 영향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Johnes와 Davis, Kelley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행동하게 되지만 내적동기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므로서 상황적인 힘보다 개인의 특성이나 동기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⁶⁾ Maslow 또한 어떤 행동은 여러 욕구들이 작용하므로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인간의 욕구를 동기로 설명하였다.⁷⁾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여성들이 의복을 통해서 정숙한 축면이나 미적인 축면을 강조하게 되는 행동의 차이를 내면의 동기나 사회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면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변인인 연령, 학력, 수입, 결혼여부, 직업유무, 종교유무, 성장지역, 가족형태의 8개변인, 신문, T.V, 여성지를 포함한 매디아접촉도 그리고 Maslow의 욕구변인들을 의복의 정숙성·심미성과 관련시켜 분석하므로서 성인여성의 기본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밝히고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변인과 기본욕구 변인중 어떤 변인들이 어떤 경로로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관련 변인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심리학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을 본능이라고 믿었으나 오늘날은 대체로 욕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욕구는 유기체내의 불균형에서 오는 진장상태를 말하며 때로 이것은 충동, 동기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Mills⁵⁾는 동기란 사람들의 행동노선이 방해받는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도전받는 상황에

서만 사용된다고 하였다. Maslow는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며 그것들은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일종의 계층적 단계로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상이한 욕구들이 동일한 행동을, 여러 욕구에 의해서 인간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6),7)} 인간의 욕구는 사회적 상황속에서 획득되고 학습된 것이며 그리고 인간의 경우 그 표현이 다종다양하므로, 어느 특정상황에서 동기지위진 행동의 요인으로서 어떠한 욕구가 동인으로 참가했는가를 그때 그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⁸⁾

Horn⁴⁾은 의복은 흔히 감추어져 있는 욕구나 욕망을 나타내며 의복을 분석하므로서 개인에게 내재되어있는 많은 심리적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Sproles⁹⁾도 의복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나 이상화된 미적표현에 대한 요구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을 능가할만큼 강한 것으로 보고 정숙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욕구로 보았다. 그는 또한 정숙성에는 조용하고 평범하며 두드러지지 않는 의복에 대한 선호 즉 개인의 보수적인 경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Hurlock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잘 띠는 두드러진 의복보다는 무난한 의복을 선택한다고 하였고 Barr는 의복선택에서 정숙성이 중요한 동기가 되지만 거기에는 동조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¹⁰⁾ Cristiansen¹¹⁾이나 김광경¹²⁾은 종교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신체노출, 디자인등에 의한 정숙성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정명선¹³⁾은 Immodest group은 실험적, 심미적, 정치적 의복가치가 높고 Modest group은 경제적 종교적가치가 높아 이를 가치가 의복의 정숙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Creekmore¹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숙성은 생리적 욕구가 만족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심미적가치는 안전욕구와 부(負)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여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¹⁵⁾와도 일치한다. 또한 Darden의 연구에서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성이 적고, 자아가 강하지 않으며, 억제되어있고 열등감을 가지며 소심한 경향이 있고 의복의 심미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침착하며 차분하고 만족하고 자아개념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¹⁶⁾. 그러나 최혜선¹⁷⁾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안전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흥미성이 높고 예의성과 심미성을 중시하였다. 강경자²⁾는

의복에서 심미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아실현성이 높고 인간관 및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의복을 통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정숙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층면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학력과 수입이 낮고 자기 존중욕구가 낮다고 하였다.¹⁵⁾ 김경희¹⁶⁾는 부(父)의 원수입이 많고 부의 교육수준의 높은 가정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정식성을 중시하고 부(父)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복의 예의성·정숙성을 중시하였으며,¹⁷⁾ 연령이 높을수록 정숙성을 강조하였다.^{18), 19)}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의 여대생, 가정주부, 직장여성으로 하였다. 1990년 12~1월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처리 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총 401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욕구진단척도

개인의 기본욕구를 측정하는 욕구진단척도는 Maslow의 욕구분류를 기초로 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자기존중욕구, 자아실현욕구, 인지욕구, 미욕구를 진단하기 위한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단계로 평가되었다. 이 척도는 Creekmore¹¹⁾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우리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척도의 타당도를 밝히기 위해서 10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생리적 안전, 소속감과 애정, 자기 존중, 자아실현, 인지, 미욕구척도별로 각기 문항과 척도점수와의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를 밝히기 위하여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에서 7개 욕구의 순위별 신뢰도 계수는 각각 .665, .799, .719, .445, .652, .646, .640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본욕구들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 욕구이다.

(1) 생리적 욕구(the physiological needs) : 신체적 생

존을 위하여 배고픔, 잠자는 것, 성(性), 극단적인 기후로부터의 보호, 감각적 자극에 대한 욕구이다.

(2) 안전의 욕구(the safety needs) : 사건, 전쟁, 자연, 재정적 불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감정적인 손해를 보게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이다.

(3)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the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 가족, 이웃, 친문직등의 집단속에 포함되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려는 욕구이다.

(4) 자기존중의 욕구(the self-esteem needs) :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존중이나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은 명성, 인식, 수용, 주복, 지위, 평판등을 포함한다)이다.

(5) 자아실현의 욕구(the need for self-actualization) : 자기의 재능에 가장 잘 맞는 일을 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내며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이상을 추구하려는 욕구이다.

(6) 인지의 욕구(the desire to know and to understand) : 안전하게 지내는데 필요한 지식이상의 것을 알고 이해하고 체계화하고 설명하려는 욕구이다. 이것은 미지의 것에 대해 호기심에서 나타난다.

(7) 미의욕구(the Aesthetic needs) : 형, 색, 디자인에서 느끼는 미에 대한 욕구이다.

2) 의복의 정숙성·심미성 측정

의복의 정숙성 심미성 척도는 1보²⁾에서 사용한 문항(18)으로 하였다. 반분법에 의한 정숙성 심미성의 신뢰도 계수는 .736, .657로 나타났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연령은 20대 ($N=149$), 30대 ($N=145$), 40대이상 ($N=107$)이며 학력은 중졸 ($N=29$), 고졸 ($N=164$), 대졸이상 ($N=198$). 그리고 월수입은 50만원이하 ($N=58$), 51~70만원 ($N=99$), 71~90만원 ($N=88$), 91~110만원 ($N=78$), 111만원이상 ($N=78$)으로 하였다. 그리고 결혼여부는 기혼 ($N=278$), 미혼 ($N=123$)으로, 가족형태는 해가족 ($N=337$)과 대가족 ($N=64$), 성장지역은 도시 ($N=305$)와 농촌 ($N=96$)으로, 종교는 유 ($N=249$), 무 ($N=152$)와 직업 유 ($N=228$), 무 ($N=173$)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의복의 정숙성 심미성에 관련변인들이 어떤 경로과

〈표 1〉 각 변인들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정 속 성																			
(2) 심 미 성		-.120																	
(3) 생 리 적 욕 구			-.206																
(4) 안 전 욕 구				-.061	.059	.027													
(5) 소 속 의 욕 구					.060	.045	.019	.104											
(6) 자기존중욕구						-.131	.280	-.059	.297	.187									
(7) 자아실현욕구							-.075	.266	.106	.169	.210	.418							
(8) 인 지 욕 구								.072	.177	-.016	.066	.029	.189	.357					
(9) 미 의 구									-.038	.274	.000	.319	.177	.595	.332	.216			
(10) 연 령										.129	-.140	-.029	-.163	.131	-.142	.086	-.053	-.074	
(11) 결혼여부(기혼)											.105	-.135	-.062	-.178	.010	-.126	-.095	-.044	-.039
(12) 학 력												-.110	.230	-.089	-.053	.072	.195	-.163	-.181
(13) 월 수 입													-.047	.082	.019	.011	-.021	.048	
(14) 직업유무(유)														.031	.149	.025	-.005	.037	
(15) 종교유무(유)															.059	-.041	.033	.065	
(16) 가족형태(핵)																-.023	.124	.028	
(17) 성장지역(도시)																	-.094	.149	
(18) 미디어접촉도																		-.133	
Mean	30.85	30.23	22.50	15.92	19.25	18.39	20.47	18.09	19.77										
S.D	4.66	4.52	2.58	3.09	2.99	4.03	3.90	2.87	3.70										

*P<.05 **P<.01 ***P<.001

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의 상대적인 중요성 및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분석하였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욕구변인들, 의복의 정숙성·심미성변인들간의 상관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표 1〉로 구하였으며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관계들만 선별하여 가설적인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경로분석 절차는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것이고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독립변인, 욕구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그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7개의 욕구변인들을 독립변인,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따라서 2개의 경로모형이 설정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표 1〉은 본 연구에 포함시킨 의복의 정숙성·심미

성과 기본욕구,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의복의 정숙성과 심미성과의 상관을 보면 두변인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의복에서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심미성에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21,22}을 지지해 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부분적으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의복의 정숙성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성장지역, 미디어접촉도와 상관을 나타낸 반면 심미성은 학력, 직업유무, 가족형태, 성장지역, 미디어접촉도 그리고 연령, 결혼여부와 상관을 나타내어 다소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의복에서 정숙한 측면을 강조하거나 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각기 환경의 영향을 다르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욕구와 의복선택행동과의 상관을 보면 정숙성은 생리적욕구와 정적, 자기존중욕구와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심미성은 자기존중욕구, 자아실현, 인지, 미의 욕

구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본욕구가 의복의 정숙성이나 심미성을 추구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의 경로분석

본 연구에 포함시킨 변인들이 어떤 경로로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숙성

의복의 정숙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의복의 정숙성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욕구하위변인은 생리적, 안전, 자기존중, 자아실현욕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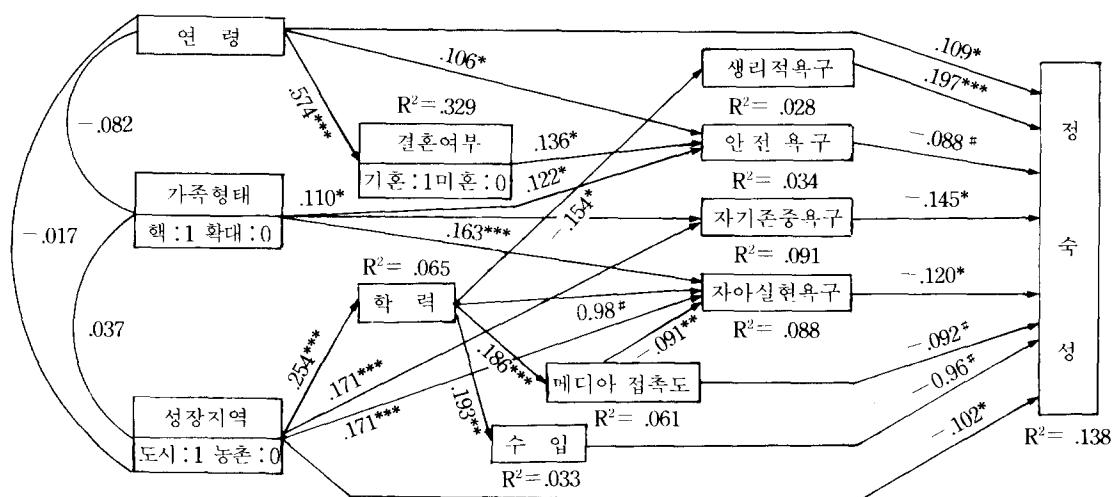
먼저 생리적욕구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학력($\beta = -.154$, $P < .05$)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생리적욕구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안전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beta = .106$, $P < .10$)과 결혼여부($\beta = .136$, $P < .05$) 그리고 가족형태($\beta = .122$, $P < .05$)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이 그리고 확대가족 구성원보다 핵가족 구성원이 안전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자기존중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형태($\beta = .110$, $P < .05$)와 성장지역($\beta = .171$, $P < .001$)으로 나타나 확대가족보다 핵가족 구성원이 높고 농촌보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이 보다 자기존중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자아실현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메디아접촉도($\beta = .091$, $P < .10$)와 학력($\beta = .098$, $P < .10$) 그리고 가족형태($\beta = .163$, $P < .001$) 및 성장지역 ($\beta = .171$, $P < .001$)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확대가족보다 핵가족 구성원이, 농촌보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이 높고 학력 및 메디아접촉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의복의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메디아접촉도($\beta = .092$, $P < .10$),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장지역($\beta = .102$, $P < .05$), 연령($\beta = .109$, $P < .10$), 수입($\beta = -.096$, $P < .10$) 그리고 기본욕구 하위변인으로는 생리적욕구($\beta = .197$, $P < .001$), 자기존중욕구($\beta = -.145$, $P < .05$), 자아실현욕구($\beta = -.120$, $P < .05$), 안전욕구 ($\beta = -.088$, $P <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정숙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생리적욕구로 나타나 생리적욕구가 높을수록 의복에서 정숙성을 중시하여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 낮은 여성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숙성은 생리적욕구가 만족될 때에만



*P<.10 *P<.05 **P<.01 ***P<.001

<그림 1> 의복의 정숙성에 대한 경로분석

의미있다고 한 Creekmore의 견해¹⁴⁾와 일치하였다.

다음 자기존중 욕구가 낮을수록 의복에서 정숙성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숙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아가 강하지 않고 열등감을 가지며 소심한 경향이 있다고 밝힌 Darden¹⁵⁾과 자기존중 욕구가 낮은 여성 일수록 정숙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측면에 가치를 둔다고 한 선행연구¹⁶⁾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확대가족 구성원일수록 그리고 도시보다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자아실현 욕구가 낮을수록 의복에서 정숙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선택에서 정숙성이 하나의 중요한 동기임을 밝히고 거기에는 동조에 대한 욕구가 작용한다고 본 Barr의 견해와 의복의 동조성에 자아실현 욕구가 부지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²²⁾에서 근거해 볼때 자기성취 욕구가 낮은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의복을 통해 자기표현을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보수적인 의복규범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 낮고 메디아접촉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핵가족보다 확대가족 구성원과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현저하였다.

다음은 안전욕구가 낮을수록 의복에서 정숙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층이 낮은 미혼여성이 그리고 확대가족 구성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의복의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에서 정숙한 측면을 중시하여 선행연구의 결과¹⁹⁾²⁰⁾과 일치한다. 또한 성장지역과 수입 그리고 메디아접촉도는 정숙성에 부적 영향을 미쳐 수입이 낮고 TV나 신문, 여성지를 많이 보지않고, 도시보다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이 의복에서 정숙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은 욕구변인인 생리적, 자아실현 욕구와 그리고 수입과 메디아접촉도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욕구와 가치관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¹⁵⁾에서 수입이나 학력이 낮은 사람이 종교적 가치관이 높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변인들은 의복에서 정숙한 측면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인 요인이 됨은 물론이고 실제 의복선택 행동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기본욕구변인이 의복의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아실현을 관련시킨 연구에서는 관련변인의 어떤

하위변인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에서 정숙한 측면을 강조하는것을 자기성취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상이한 여러욕구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 욕구가 정숙성행동의 동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도 1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행동도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욕구에 의해서만 정숙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회적상황이나 개인의 환경이 작용하게 된다. 이는 정숙성의 신천적인면을 인정하면서 그 기준은 관습적임을 강조한 Flügel과 주어진 상황에서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여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한 Goffman²³⁾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2) 심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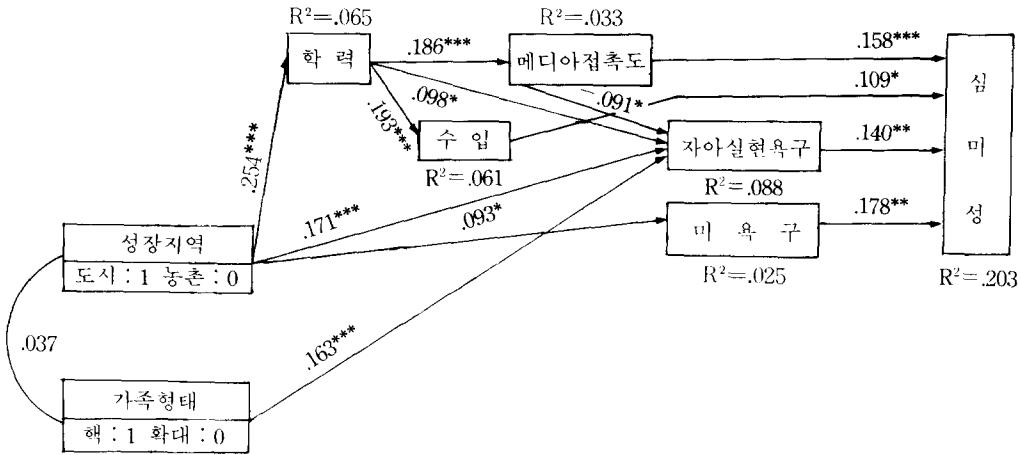
의복의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의복의 심미성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욕구하위변인은 자아실현 욕구($\beta=.140$, $P<.05$)와 미욕구($\beta=.178$, $P<.001$)로 나타났다. 자아실현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정숙성과 동일하다. 미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장지역($\beta=.093$, $P<.001$)으로 나타나 농촌보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미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심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메디아접촉도($\beta=.158$, $P<.001$)와 월수입($\beta=.109$, $P<.05$)이며 욕구하위변인으로는 미욕구($\beta=.178$, $P<.001$)와 자아실현욕구($\beta=.140$, $P<.05$)로 나타났다. 의복의 심미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미욕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의복에서 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메디아 접촉도가 높을수록 의복에서 심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의복에서 미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TV나 신문, 잡지를 통해 정보를 추구하며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현저하였다.

다음은 자아실현욕구가 높을수록 의복에서 미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과 확대가족보다 핵가족구성원들이 높았고,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의복의 심미성에 대한 경로분석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게 나타나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구가 의복의 미적표현을 통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을 통해서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일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성취하려는 하나의 표현방법이 되고, 의복이 그러한 자기표현의場이 되고 있다는 전제²⁾를 지지해 준다.

다음은 월수입이 많을수록 의복에서 심미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보²⁾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월수입이 심미적 가치관에는 어떤 경로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¹⁵⁾와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실제 의복을 구매하는 행동에서 수입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의복행동의 선택준거가 되는 의복가치관 특히 심미적 가치관에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전보에서는 높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본보에서는 학력이 높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이 차이를 보여 반복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의복에서 심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행동은 전보에서는 자아를 실현하려는 표현적인 행동이 되고 본보에서는 기본욕구들이 심미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어떤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대적 중요성 및 이들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욕구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먼저 생리적욕구에는 학력이, 안전욕구에는 연령, 결혼여부, 가족형태가, 그리고 자기존중욕구에는 성장지역과 가족형태가 영향을 미쳤다. 자아실현 욕구에는 학력, 성장지역, 가족형태, 메디아접촉도 그리고 미욕구에는 성장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리적욕구는 학력이 낮은 여성일수록 높고, 연령이 높은 기혼여성이나 핵가족구성원이 신체적, 감정적 손해를 보게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안전욕구가 강하였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려는 욕구는 핵가족구성원과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이 높았다.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구는 학력이 높을수록, 학대가족보다 핵가족구성원이 그리고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미를 추구하는 욕구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이 높았다.
2. 의복의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욕구하위변인으로는 생리적, 자기존중, 자아실현, 안전

욕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메디아접촉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성장지역, 월수입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안전욕구를 통해서, 가족형태는 안전, 자아존중, 자아실현욕구를 통해서, 성장지역은 직접운 물론 자아존중, 자아실현욕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의 심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욕구하위변인으로는 미욕구, 자아실현욕구이며, 메디아접촉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월수입으로 나타났다. 성장지역은 자아실현 및 미욕구를 통해서, 가족형태, 하려운 자아실현욕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에서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생리적욕구는 높지만 신체적, 감정적 손해를 보게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와 자신이 존중받거나,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구는 낮았으며 연령이 높고 월수입이 낮을수록 그리고 TV나 신문 여성지에 대한 접촉도가 낮고 도시보다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정숙한 축면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심미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의복을 통해 미를 추구하고, 자기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높았으며 월수입이 높고 TV나 신문, 여성지등의 메디아접촉을 통해 정보를 추구하는 여성들이 의복에서 미적 표현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욕구변인은 의복의 정숙성 심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은 물론이고 욕구변인은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의복의 정숙성 심미성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복선택시 정숙성이나 심미성을 추구하는 행동은 하나가 아닌 여러욕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이와같이 기본욕구들이 이를 행동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물론 어떤 욕구가 작용하느냐에 따라 즉 욕구의 종류나 그강도와 우선순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복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구나 욕망을 나타낸다고 보고 의복을 분석하므로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많은 심리적과정을 알 수 있다고 한 Horn과 그리고 어떤행동도 여러욕구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보는 Maslow의 견해를 지지하고 인간의 행동을 욕구와 환경 양자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입증해 준다.

참 고 문 헌

- 1) Flü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N.Y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 (1971)
- 2) 강강자,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인구-자아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30(4), 27~38. (1992)
- 3)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Y : Macmillan Pub. Co. 32~55 (1985)
- 4) Horn, M.J.,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2 Second.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6, 4. (1975)
- 5) Mills, C.W., *Situated actions and Vocabularies of mo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 : 904~913. (1940)
- 6) Maslow, A.M.,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2nd, ed, 35~58, 59~64 (1970)
- 7) 이훈구, *상경심리학*, 법문사, 118~195, 456. (1985)
- 8) 고영복, *현대사회심리학*, 법문사, 24. (1985)
- 9) Sproles, G.B., *Fashion :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Burgess Publishing Company.
- 10) 이인자, *복식 사회심리학*, 수학사, 53. (1984)
- 11) Cristiansen, K & Kernaleguen, A., *Orthodoxy and Conservatism—modesty in Clothing Selection*, *J. of Home Economics*, 63(4), 251~55(1971)
- 12) 김광경,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73)
- 13) 성명선, 남여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정숙성과 의복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85~94. (1984)
- 14)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63)
- 15) 강경자,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3(1), 1~12. (1989)
- 16) Darden, L.A., *Personality Correlates of Clothing Interest for Group to Non-incarcerated and Incarcerated women Ages 18-3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 of North Carolina. (1975)
- 17) 최혜신,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전감-불안감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18) 김경희, 임숙자,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 착용
동기와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7(2), 1~10, (1983)
- 19) 김순구,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4), 305-313,
(1990)
- 20) 강혜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
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3), 1-11, (1979)
- 21) 이명희,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
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 22) 강경자,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의 동조 및 개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4), 431-441, (1992)
- 23) Goffman, E., Attitude and Relationizations Regarding
Body Exposure, In Roch, M.E and Eicher J.B,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york: John
Wiley & Sons. 50-52, (1965)